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 조절효과 중심으로 -*

강 효 경

한성대학교

유 장 순[†]

나사렛대학교

본 연구는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546명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분석과 상관관계, 그리고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와 의사소통과정은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문제해결능력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가족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현장 및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상담 및 부모상담,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어 : 장애아동가족,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 탄력성의 조절효과

* 본 논문은 2012년도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유장순, 나사렛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Tel : 041-570-1462, E-mail : yujjng@kornu.ac.kr

장애유아의 출생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가정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장애유아의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녀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요구는 가족들에게 두려움과 육체적 피로감을 주며, 치료지원과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그리고 사회적 편견 및 지지 부족은 그들에게 사회·심리적 고통과 소외감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장애 자녀의 양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며 높은 스트레스를 보일뿐만 아니라,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오세란, 2001). 이러한 가정에 장애유아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에 대한 적응과 재조직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오랫동안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양육스트레스는 상호·순환적이어서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Cmic et al, 1983). 반면에 자녀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가족결속력이 높아지며, 새로운 양육기술의 습득,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여 장애아동 양육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가족기능 수행을 잘하는 가족도 볼 수 있다(안양희, 2006; Glasscock, 2000).

199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가족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적응을 보인 가족을 설명하며 위기상황에서 가족이 적응적이 되도록 하는 가족의 특징을 의미한다(McCubbin & McCubbin, 1993; Walsh, 1996). 가족탄력성은 스트레스에 직면한 가족의 기능 변화를 유도하는 특성, 추진력으로(이인숙 외, 2002), 성공적인 가족적응의 핵심요소로 나타나고 있다(Patterson, 1991; McCubbin & McCubbin, 1993). 가족탄력성의 요인은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McCubbin과

동료들(1993), Silliman(1994), Walsh(1998)등은 신념체계, 조직유형, 가족자원, 의사소통, 응집성과 연결성 등의 여러 가지 가족탄력성 요인을 밝혔다(김미옥, 2001; 김안자, 2005). 이와 같이 가족탄력성의 개념과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결핍관점이 아닌 적응과 회복이라는 해결 및 건강성에 초점을 두는 강점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탄력성은 장애아동가족과 같이 다양한 역경에 처한 가족을 결점 또는 문제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재생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전받는 가족으로 본다(McCubbin & McCubbin, 1993; 1996; Patterson, 2002; 어용숙, 2010 재인용). 따라서 장애아동가족의 중재에서 가족탄력성은 결점이나 병리에 초점을 둔 결핍패러다임에서 적응과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하는 강점에 기반하므로써 장애아동의 가족들을 강화하고 원조하며 미래 지향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가족이 가족 내에서 의사소통이 보다 명확하고 장애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개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장애수용 및 적응과정에서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면 보다 탄력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김미옥, 2001)는 것이다. 또한 가족탄력성의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어머니 자신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Belsky, 1984).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족탄력성은 스트레스가 많이 존재하는 장애아동가족이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필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응과 회복이라는 특성은 장애아동 가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가족과 가족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ullivan(2003)은 가족탄력성과 자폐아동 부모의 수용에 관하여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자폐아동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Lin(2000)은 뇌성마비아동 가족들을 대상으로 McCubbin(1993)의 탄력성 모델과 가족생활주기이론을 기초로 하여 대처와 적응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가족 적응이 가족탄력성의 하위 요인들이 조절변인으로서의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Cutrona와 Troutman(1986)은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가족탄력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장애아동 가족이 장애아동 양육스트레스 상황에 나름대로 대처하며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들(김미옥, 2001; 김고은, 2006; 김안자, 2005; 이선애, 2004; 이주희, 정현주, 2009; 어용숙, 2010), 가족탄력성을 기반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가족의 스트레스와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안주선, 2007; 홍정애, 2007), 가족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오세란, 2001; 이한우, 2002; 이현지, 2005)이 이루어졌다.

가족탄력성이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절변인으로 그 효과가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정현주(2009)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응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탄력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이 조절효과가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적응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가족강인성, 의사소통, 문제해결전략, 사회적 지지의 모든 요인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희(2004)는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스트레스와 조직유형의 상호작용변수, 스트레스와 의사소통과정의 상호작용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가족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다. 김미옥(2001)의 연구에서도 가족탄력성은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가족적응에 조절변수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송자경(2002)의 연구에서도 가족탄력성은 아동에게 미치는 스트레스의 크기와 강도를 현저하게 낮춤으로써 조절변인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서명석(2004)은 장애인 형제의 사회적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 형제의 사회적응 정도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가족탄력성이 조절변인으로서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볼 때 가족탄력성은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다.

탄력성과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지은(2003)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문제해결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더 적극성을 띠며,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정(2005)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와 관련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 경우, 정서 및 행동문제에 있어 더욱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경(2006)은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 및 주변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보호요인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이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중재·완화시켜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적자원으로 효율적인 문제해결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가족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취학전 장애아동 가족의 스트레스에 따른 적응이나 대처 방법에 관한 것이며, 다양한 장애영역의 가족보다는 특정영역의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가족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가족탄력성의 하위 요인이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에 조절변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아동의 출생은 장애아동가족에게 인생의 위기이자 전환기이며, 생애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기이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시기의 시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애아동가족의 생애 주기별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가족들이 장애아동의 자녀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족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하는지 그리고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이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5세부터 18세 미만까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조절변수로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을 보이는가?

둘째, 장애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은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특수학교는 17개 학교(강동구에 소재한 3개교, 강서구 2학교, 강남구 5학교, 강북구 7학교)에서 장애아동가족 54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구분	빈도(%)
아동	연령	5-7세	88(16.1)
		8-13세	121(22.2)
		14-16세	158(28.9)
		17-19세	179(32.8)
	성별	남자	339(62.1)
		여자	207(37.9)
	장애유형	지체장애	28(5.1)
		뇌병변	97(17.8)
		시각장애	4(0.7)
		청각장애	34(6.2)
		발달장애(자폐)	143(26.2)
		지적장애	238(43.6)
		기타	2(0.4)
장애등급	1등급	372(68.1)	
	2등급	139(25.5)	
	3등급	33(6.0)	
	기타	2(0.4)	
양육자	연령	29-29세	8(1.5)
		30-39세	120(21.9)
		40-49세	329(60.3)
		50-59세	85(15.6)
		60세 이상	4(0.7)
	관계	아버지	66(12.1)
		어머니	469(86.1)
		기타	11(1.8)
	교육수준	초등졸	6(1.1)
		중졸	30(5.5)
		고졸	227(41.6)
		전문대졸	96(17.6)
		대졸이상	187(34.2)
월수입	100만원미만	40(7.3)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98(17.9)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37(25.1)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122(22.3)	
	400만 원 이상	149(27.3)	

다. 연구대상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 도구

가) 스트레스 척도

가족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Helroyd (1974)가 제작한 QRS(The Questionnaire on Resource and Stress)척도를 Friedrich와 그의 동료들이 (1983) 52문항으로 단축시켜 제작한 것을 김미옥(2001)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에 부합하도록 척도를 수정 및 재구성하였다. 먼저 김미옥(2001)이 사용한 측정도구 52문항을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분석한 결과 만성적 질환에 해당되는 문항은 본 연구대상에 부적절하였으며, 유사한 문항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부족한 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예비조사에서 제기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 부합되는 문항을 선택하였으며, 만성질환에 대한 문항은 제외시켰다. 그런 다음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수 2명, 특수교육 관리자 2명 특수교사 5명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2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시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다시 문장을 검토하고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를 조사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작성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2점 척도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문항 3, 4, 6, 7, 8, 9, 13, 19번은 역산하였다. 전체 문항들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87로 나타났다.

나) 문제해결능력 척도

문제해결능력 척도는 Heppner와 Petersen(1982)에 의해 개발된 문제해결질문지(The Problem Solving Inventory: PSI)를 임현우, 이동귀 및 박현주(200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해결 상황에서 적절히 행동하는 경향, 일반적인 문제 해결기술, 통제소재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일반적인 문제해결능력 및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형태의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35문항 중 여과 문항(filter items)을 제외하고 32개의 문항만 최종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1, 2, 3, 4, 10, 11, 15, 20, 23, 24, 29, 31번은 역산하였으며, 전체 문항들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eppner와 Petersen(1982)에 의해 보고된 신뢰도 계수는 .90이었으며, 임현우·이동귀·박현주(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8로 나타났다.

다) 가족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은 Walsh(1998)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김미옥(2001)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 요인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념체계는 가족통제감, 가족강점으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94로 나타났다. 조직유형의 하위 요인은 35문항으로 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가족자원

표 2.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변수		문항수		
스트레스		20		
문제해결능력		32		
가족탄력성	신념체계	가족통제감	18	30
		가족강점	12	
	조직유형	역할안정성	5	35
		가족응집력	10	
		가족자원 활용도	20	
		의사소통과정	10	
인구 통계학적 요인		8		
총 문항수		135		

활용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의사소통과정은 10 문항으로 의사소통의 명확성, 개방된 감정표현,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89$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관한 문항을 작성하였는데 각 변인별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표 2>와 같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2010년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특수학교 2개교,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 1개원, 대학교 부설 치료실 1개원에 다니는 장애아동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10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조사 대상자

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응답분포를 보여 주었으나, 가족 스트레스 질문에 대한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유사한 문항, 그리고 해당되지 않은 문항이 있어서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수, 특수교육 관리자 및 교사의 자문을 받아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장애아동의 가족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된 문항을 다시 예비조사 대상자 중 20명에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다시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본 연구자가 직접 특수교육 기관을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기관에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회수 방법은 직접 회수하거나 조사대상 학교에 부탁하여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총 800부의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597부로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하게 응답된 51부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총 546부를 최종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한 후, SPSS 14.0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모형의 각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가족탄력성,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알아보는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가족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결 과

연구변수의 기술 분석

연구대상의 주요 특성인 스트레스, 가족탄력성,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의 기술적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스트레스, 가족탄력성, 문제해결능력 모두 대체로 3.0 이상(5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가족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가족응집력이 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는 3.25이며 문제해결능력도 3.2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단순 상관관계가 .80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

표 3.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에 대한 기술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족 스트레스		3.25	.69	1.25	4.65
신념체계	가족통제감	3.25	.55	1.65	4.65
	가족강점	3.45	.71	1.00	5.00
가족탄력성	역할안정성	3.41	.71	1.20	5.00
	조직유형	3.73	.57	1.70	5.00
	가족자원활용도	3.25	.55	1.65	4.65
의사소통 과정		3.62	.65	1.20	5.00
문제해결능력		3.29	.35	2.00	4.19

표 4.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스트레스	가족 통제감	가족 강점	역할 안정성	가족 응집력	자원 활용도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스트레스	1							
가족 통제감	-.36**	1						
가족강점	-.23**	.76**	1					
역할 안정성	-.29**	.70**	.60**	1				
가족 응집력	-.16**	.67**	.64**	.61**	1			
가족자원 활용도	-.30**	.69**	.64**	.61**	.67**	1		
의사소통 과정	-.19**	.72**	.66**	.58**	.75**	.69**	1	
문제해결 능력	-.20**	.48**	.44**	.40**	.46**	.58**	.52**	1

** p < .01

는데(우수명, 2008), <표 4>에 제시된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8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와 종속변수인 문제해결능력 간에는 유의적인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신념체계(가족 통제감, 가족강점)와 조직유형(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가족자원 활용도)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과 종속변수인 문제해결능력 간에는 모두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가족탄력성에서는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 가족통제감과 역할 안정성, 가족통제감과 의사소통 과정, 가족응집력과 의사소통과정 사이에 상관계수가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접근-회피적인 모습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다 잘 통제하여 문제해결 시 자신감을 높여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이는 제 2의 독립변수로서 조절변수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의 조절 효과

가)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 조절효과

가족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신념체계가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 관계에서 조절효과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델1은 통제변수만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한 회귀식으로 스트레스와 신념체계에 대한 전체 설명력(R^2)은 24.1%로 나타났으며 신념체계($\beta=.47$)는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1모델의 회귀식에 가족탄력성의 하위영역인 신념체계 변수를 다시 투입하여 설명력(R^2)을 관찰 한 결과 모델1보다 설명력(R^2)이 0.8% 증가하였다.

스트레스와 신념체계는 모두 문제해결능력

표 5. 신념체계의 조절효과

변수	분석	모델1		모델2	
		B	Beta	B	Beta
스트레스		-.03	-.06	-.04	-.09*
신념체계		.26	.47***	.26	.47***
스트레스 *신념체계				.06	.09*
상수		3.29		3.30	
F		85.98***		56.62***	
R ²		.241		.249	
R ² Change		-		.008	
Durbin-Watson		1.76		1.79	

*p<.05,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신념체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념체계의 하위 요인에서 첫 번째로 가족통제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다. 모델1에서는 스트레스와 가족통제감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기 전에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설명력(R²)은 22.7%로 나타났으며 가족통제감($\beta=.46$)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6. 신념체계의 가족통제감 조절효과

변수	분석	모델1		모델2	
		B	Beta	B	Beta
스트레스		-.02	-.04	-.01	-.03
가족통제감		.26	.46***	.26	.47***
스트레스 *가족통제감				-.02	-.03
상수		3.30		3.29	
F		79.70***		53.30***	
R ²		.227		.228	
R ² Change		-		.001	
Durbin-Watson		1.78		1.78	

***p<.001

표 7. 신념체계의 가족강점 조절효과

변수	분석	모델1		모델2	
		B	Beta	B	Beta
스트레스		-.05	-.11**	-.07	-.13**
가족강점		.20	.42***	.21	.43***
스트레스 *가족강점				.11	.19***
상수		3.29		3.31	
F		70.02***		56.83***	
R ²		.206		.240	
R ² Change		-		.034	
Durbin-Watson		1.76		1.84	

p<.01, *p<.001

모델2에서는 스트레스와 가족통제감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전체 설명력(R²)은 22.8%로 나타났으며 모델1보다 설명력(R²)이 0.1% 증가하였고 가족통제감(β=.47)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상호작용변수인 스트레스와 가족통제감 변수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신념체계의 하위 요인인 가족강점의 조절효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모델1에서는 스트레스와 가족강점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기 전에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설명력(R²)은 20.6%로 나타났으며, 가족강점(β=.42)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스트레스(β=-.11)는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모델2에서는 스트레스와 가족강점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전체 설명력(R²)은 24.0%로 모델1보다 설명력(R²)이 3.4% 증가

하였고 가족강점(β=.43)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변수인 스트레스와 가족강점의 상호작용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 조절효과

가족탄력성의 하위영역인 조직유형이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 관계에서 조절효과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델1은 통제변수만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한 회귀식으로 스트레스와 조직유형에 대한 전체 설명력(R²)은 30.2%로 나타났으며, 조직유형(β=.547)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1모델의 회귀식에 가족탄력성의 하위영역인 조직유형 변수를 다시 투입하여 설명력(R²)을 관찰한 결과 모델1과 같게 나왔다. 스트레스는 문

표 8. 조직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분석	모델1		모델2	
		B	Beta	B	Beta
스트레스		-.02	-.05	-.02	-.04
조직유형		.36	.54***	.36	.54***
스트레스	*조직유형			-.01	-.01
상수		3.29		3.29	
F		117.26***		78.10***	
R ²		.302		.302	
R ² Change		-		-	
Durbin-Watson		1.78		1.77	

***p<.001

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조직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유형의 하위 요인에서 첫 번째로

역할안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결과는 <표 9>과 같다. 모델1에서는 스트레스와 역할안정성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기 전에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설명력(R²)은 22.7%로 나타났으며 가족통제감($\beta=.46$)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표 9. 조직유형의 역할안정성 조절효과

변수	분석	모델1		모델2	
		B	Beta	B	Beta
스트레스		-.02	-.04	-.01	-.03
가족안정성		.26	.46***	.26	.47***
스트레스	*역할안정성			-.02	-.03
상수		3.30		3.29	
F		79.70***		53.30***	
R ²		.227		.228	
R ² Change		-		.001	
Durbin-Watson		1.78		1.78	

***p<.001

표 10. 조직유형의 응집력 조절효과

변수	분석	모델1		모델2	
		B	Beta	B	Beta
스트레스		-.07	-.13**	-.07	-.13**
가족응집력		.27	.44***	.27	.44***
스트레스	*가족응집력			.02	.02
상수		3.30		3.30	
F		79.23***		52.82***	
R ²		.226		.227	
R ² Change		-		.001	
Durbin-Watson		1.82		1.82	

p<.01, *p<.001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모델2의 전체 설명력(R²)은 22.8%로 역할안정성(β=.47)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변수인 스트레스와 역할안정성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조직유형의 하위 요인인 가족응집력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모델1에서는 스트레스와 응집력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기 전에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설명력(R²)은 22.6%로 나타났다. 스트레스(β=-.13)으로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집력(β=.44)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모델2에서는 스트레스와 응집력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전체 설명력(R²)은 22.7%로 모델1보다 설명력(R²)이 0.1% 증가하였다. 스트레스와 응집력 모두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변수인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의 상호작용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로 조직유형의 하위 요인인 가족자원 활용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모델1에서는 스트레스와 가족자원 활용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기 전에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설명력(R²)은 33.4%로 나타났다. 가족자원 활용도(β=.57)는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는 스트레스와 응집력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전체 설명력(R²)은 33.6%로 모델1보다 설명력(R²)이 0.2% 증가하였으며 가족자원 활용도(β=.57)는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상호작용 변수인 스트레스와 가족자원 활용도에서는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조직유형의 가족자원 활용도 조절효과

변수	분석	모델1		모델2	
		B	Beta	B	Beta
스트레스		-.02	-.04	-.01	-.03
가족자원 활용도		.36	.57***	.36	.57***
스트레스	*가족자원 활용도			-.04	-.04
상수		3.29		3.29	
F		135.98***		91.17***	
R ²		.334		.336	
R ² Change		-		.002	
Durbin-Watson		1.83		1.84	

***p<.001

다) 가족탄력성의 의사소통과정 조절효과

가족탄력성의 의사소통과정이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 관계에서 조절효과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모델1은 통제변수만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한

회귀식으로 스트레스와 의사소통과정에 대한 전체 설명력(R²)은 27.7%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beta=-.11$)와 의사소통과정($\beta=.50$) 모두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1모델의 회귀식에 가족탄력성의 하위영역인 의사소통과정을 다시 투입하

표 12. 의사소통과정의 조절효과

변수	분석	모델1		모델2	
		B	Beta	B	Beta
스트레스		-.06	-.11**	-.05	-.10*
의사소통 과정		.27	.50***	.27	.50***
스트레스	*의사소통 과정			-.06	-.08*
상수		3.29		3.29	
F		103.59***		70.54***	
R ²		.277		.282	
R ² Change		-		.005	
Durbin-Watson		1.79		1.77	

*p<.05, **p<.01, ***p<.001

여 설명력(R^2)을 관찰 한 결과 전체 설명력(R^2)은 28.2%로 나타났으며 모델1보다 설명력(R^2)이 0.5% 증가하였고, 의사소통과정($\beta=.50$)과 스트레스는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 스트레스와 의사소통 과정($\beta=-.08$)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의사소통과정은 조절변수로서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 관계를 밝히고, 조절변수로 가족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장애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가 조절변수로서 효과가 있었는데, 신념체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나, 조절변수로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탄력성의 의사소통과정은 조절변수로서 효과가 있었는데, 의사소통과정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는 문제해결능력에 유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장애아동가족의 문제해결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간에도 유의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탄력성이 높으면 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탄력성의 모든 하위 영역과 문제해결능력 간에는 유의적인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아동주양육자의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어용숙(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양육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 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손재익(2010), 조미경(201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족탄력성의 하위 영역인 신념체계는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에 조절변수로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애아동의 양육으로 인해 가족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할지라도 신념체계가 높다면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김미옥, 2001; 이주희·정현주, 2009; 정현주,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신념체계의 하위 영역인 가족통제감과 가족장점이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가족 통제감과 가족장점이 높다면 가족들이 스트레스와 긴장이

유발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두 변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가족의 위기나 역경에 대한 이해 정도는 결국 생애주기별에 따라 장애아동 양육 및 교육에서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와 부담은 더욱 가중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현실적으로 봉착되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하는 능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신뢰성과 지지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상담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구성원들 스스로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 하위 요인인 가족역할 안정성과 가족응집력, 그리고 가족 자원 활용도는 각각의 변수들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스트레스와 문제해결 능력과의 상호관계에서는 조절변수로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의 응집력이나 적응성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영향을 준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Olsen, 1999; 김윤희, 2001)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장애아동가족들이 문제해결하는데 있어 장애아동을 포함한 가족의 부담감을 경감시켜 문제의 요인들을 파악하고 대처자원으로 주변에 있는 사회지원 자원의 유형과 유용성을 활용하여 가족들의 사회지원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지원 서비스 전달이 요구된다(서은정·신진용·이상복, 2004)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 양육과 교육에 대한 가족의 스트레스는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친밀감 및 일체감, 그리고 가

족원 개개인이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되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 역시 스트레스에서 오는 문제해결 능력에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의 가족들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강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졌으며 장애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된다는 점(송현정, 2008; Walsh, 1998)을 고려해볼 때, 가족 구성원들 간에 정서적 유대감과 긍정적인 힘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가족간, 지역사회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가족탄력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 과정은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에 조절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의사소통과정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정현주, 2008)와 일치한다. 이는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더 명확해지고, 열린 마음으로 상호협력하는 자세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때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문제해결능력을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명확해지도록 가족 상담이나 훈련이 필요하고, 가족탄력성의 요인을 강화시키는 부모상담 프로그램이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하위 영역들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서 장애아동 가족의 역량 및 강점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 정서적 특성, 가족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스트레스, 가족탄력성, 문제해결능력에 관련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표집에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아동가족을 임의 선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였다.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 관계에 있어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로서의 명확하고 풍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및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고은 (2006).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옥 (2001). 장애아동의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7, 34-70.

김민정 (2005).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안자 (2005). 가족 레질리언스가 한부모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

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김원표 (2008). SPSS 통계분석-기초편, 서울: 사회와 통계.

서명석 (2005). 장애인 형제의 사회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 효과.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성태제 (2008).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손재익 (2010).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가족탄력성의 구조적 관계 -비장애아동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송영경 (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자경 (2003). 간질아동과 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주선 (2007). 가족탄력성에 기반한 집단프로그램이 장애아동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어용숙 (2010). 장애아동 주양육자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 장애연구, 26(1), 209-226.

오세란 (2001). 장애아 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6, 263-2.

우수명 (2008). 『(TP)사회복지조사』, 서울: 인간과 복지.

윤수희 (2004).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애 (2004).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

- 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인숙, 박영숙, 송미순, 이인옥, Hesook Suzie, Kim, 박연환, 최경원, 진영란, 김대회, 이현숙 (2002). 한국가족의 기능 회복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만성질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2(4). 560-569.
- 이주희, 정현주 (2009). 스트레스가 자폐성 장애아동가족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 학회지*, 30(4), 15-31.
- 이한우 (2002).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 특성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지 (2005). 장애아동 모(母)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1(4) 87-109.
- 안양희 (2006).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간호임상의의 활용. *간호학탐구*, 15(1), 5-24.
- 정현주 (2008). 자폐아동 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이 자폐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경로 분석-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3(3). 89-110.
- 조미경 (2011). 취학전 장애아동 부모가 인식한 가족탄력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7(1). 323-349.
- 홍정애 (2007). 가족치료놀이를 적용한 가족탄력성 증진프로그램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omic, K. A., Friedrich, W. N. &Greenberg, M. T. (1983). Adaptation of families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A model of stress, coping, and family ecology.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8(2), 125-138.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Hawley, D. R., & DeHaan, L., (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 285-298.
- Glasscock, R. (200).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experience of being a mother of a child with cerebral palsy, *Pediatric Nursing*, 26(4), 407-410.
- Heppner, P. P., & Peterso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66-75.
- Lin, S. L. (2000). Coping and adaptation in family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Exceptional Children*, 66, 201-218.
- Olsen, S. F., Marshall, E. S., Mandelco, B. L., & Allred, K. W. (1999). Support communication, and hardiness in familie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Family Nursing*, 5, 275-291.
- McCubbin, H. I., & McCubbin, M. A. (1993).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pp. 247-254.
- McCubbin, H. I., & McCubbin, M. A. (1996). Resiliency in families: A conceptual model of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response to stress and crisis. In H. MaCubbin, A. Thompson, & M. McCubbin(Eds.), *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 McCubbin, H. I., & McCubbin, M. A. & Tompson, A. I. (1993), Resiliency in families: the role of family schema and appraisal in family adaptation to crises(pp.153-177).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 Challenges for the futur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Patterson, J. M. (1991). Family resilience to the challenge of a child's disability. *Pediatric Annals*, 20(9), 491-500.
- Patterson, J. M. (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49-360.
- Silliman, B. (1994). Rationale for resilient families concept paper.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 Walsh, F. (1993). Conceptualization of normal family processes. In Walsh, F.(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_____ (1996).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35(3).
- _____ (1998). Editorial: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 269-271.
- _____ (1998).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역
- (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서울: 나남.
- ◆ 원 고 접 수 일: 2012년 7월 31일
- ◆ 수정원고접수일: 2012년 9월 05일
- ◆ 게 재 승 인 일: 2012년 9월 10일

**The Influence of Stres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upon Problem-solving Ability
- Centering on the Buffer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

Kang, Hyo-Kyung

Hansung University

Yoo, Jang-Soon

Korea Nazaren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tres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upon a problem-solving ability based on a buffer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through life cycle.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as 546 parents who hav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in special school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derived from questionnaires and the answer sheet was analyzed by SPSS(VER. 14). A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general information and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grou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Higher belief system, higher organization type, higher communication process of the family with disabled children tend to appear more positive influences on buffering effects for stresses of family and solving-problem abilities. Findings from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 that the buffer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dicate to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the problem-solving ability in the family with disabled children.

Key words : family with disabled children, problem-solving ability, buffering effect of resilience